

보 도 자 료

(농 립 부)

- 제공일 : 2006. 4. 5.
- 제공자 : 농림부 축산물위생과
- 과 장 : 윤 기 호
- 사무관 : 황 인 식
- 전 화 : 500-1925

이 자료는 2006년 4월 6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08년까지 모든 국내산 쇠고기 이력추적 가능

- 농림부는 한우의 생산·도축·유통과정의 각 단계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을 금년도에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 2006년도에 쇠고기 이력추적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브랜드 경영체를 14개로 늘리고, 특히 3개 지자체(파주시, 김해시, 김제시)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함으로써 국내 총 한우 사육두수의 5%(11만두)에 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해졌다.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의 효과를 높이고 소비자들의 접근 기회를 늘리기 위해 이력제가 적용되는 쇠고기 판매장도 시행초기 10개소에서 금년에는 40개소로 확대하였다.
 - 주요 판매장 : 이마트 주요매장, 농협 하나로클럽 등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은 유럽·일본·미국 등에서의 BSE 발생을 계기로 국내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04년 10월에 9개 우수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 소비자들은 이력시스템이 적용되는 쇠고기를 구입할 경우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육하고 가공·유통하였는지를 인터넷과 휴대폰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 04~05년간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이 적용된 쇠고기는 동일 등급 다른 쇠고기에 비해 소비자가격이 7~10% 높게 형성되는 등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농림부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적용 판매장에서 주기적으로 샘플을 채취,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이력관리상 오류 또는 허위 조작 방지 등 사후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이력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 농림부는 국내산 쇠고기의 품질고급화를 바탕으로 한 외국산 쇠고기와 유통차별화가 개방화시대 한우산업의 주요 발전 과제라고 보고 '08년까지 모든 국내산 쇠고기의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각종 제도와 인프라를 정비할 방침이다.

[참고자료]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시범사업 참여대상 생산단계 전산등록 현황

(2006.3.15.현재)

구 분	참여대상	참여농가 현황		등록(기존소)		등록율 (%)	비고
		농가	두수(A)	농가	두수(B)		
신규 (지역)	경기 파주시	179	4,901	182	2,157	44.0	
	전북 김제시	454	20,540	435	11,475	55.9	
	경남 김해시	77	6,574	74	5,229	79.5	
	소계	710	32,015	691	18,861	43.0	
신규 (브랜드)	함평천지한우	63	4,406	63	4,406	100	
	상주감먹는한우	104	7,160	104	6,858	95.8	
	홍천늘푸름한우	150	12,910 (5,015)	374 (150)	5,910 (5,015)	45.8 (100)	등록변경예정
	순한한우	206	11,347	206	11,347	100	
	합천황토한우	95	5,002	98	3,353	67.0	
	소계	618	40,825	845	31,874	78.1	
기존참여 브랜드	횡성한우	1,843	20,326	1,843	20,326	100	
	안성마춤한우	109	5,535	109	5,535	100	
	양평개군한우	147	3,640	147	3,640	100	
	섬진강뜨레한우	230	4,296	388 (230)	3,864	89.3	
	장수한우	125	7,321	126	3,511	49.7	3월중 등록예정
	대관령한우	2,670	15,957	2,670	15,957	100	
	팔공상강우	66	6,897	66	6,897	100	
	남해화전한우	33	2,486	33	1,704	68.7	3월중 등록예정
	하동솔잎한우	66	3,760	67	3,612	96.1	
	소계	5,289	70,218	5,449	65,046	92.6	
총계		6,617	143,058	6,985	115,781	80.9	

★ 기존참여브랜드의 등록실적은 사육두수 기준임